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	
	보도	배포 시 부터	배포 2017.5.18.(목)	
책 임 자	금융위 보험과장 손 주 형(02-2100-2960)	담 당 자	현지은 사무관(02-2100-2964)	
	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박 증 수(02-3145-7240)		박진해 팀 장(02-3145-7242)	

제 목 :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(IFRS17) 확정에 따른 향후 대응 계획

- ◆ '21년부터 보험회사에 적용될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IFRS17 기준서가 '17.5.18일 확정·발표
- ◆ 당국은 「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」(3.8일 출범)를 중심으로 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
- ① IFRS17 연착륙을 위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(LAT) 개선방안을 6월말 확정하여 금년말 시행
- ②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감독체계로의 전환 등 리스크 중심 감독 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

1 개요

- '17.5.18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(IASB)는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기준서를 확정·발표
 -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'20년까지 적용되고, '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
 -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국으로서 IFRS17 최종 기준서를 면밀히 분석하여, '21년부터 **소보험사에 차질없이 도입할 계획**

2 IFRS17의 기대효과 및 영향

- IFRS17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명확히 나타내는 장점
 - 또한, 수입보험료 등 양적 규모 중심에서 **보험회사의 장기 회사가치** 중심으로 회계기준이 전환되는 의미
 - 이에 따라 **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**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- 한편,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어 **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**
 - 또한, 원가기준인 현행 보험권 리스크 감독체도를 시가평가 체계에 **상응하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될 필요**

3 그간의 준비 상황

- 우리나라는 당국과 보험업계, 학계 등 보험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「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」('17.3.8 출범)를 중심으로 IFRS17 시행에 대비 중
 - 도입준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**3개 실무작업반***에서 IFRS17 연착륙 지원방안과 리스크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검토
 - * 도입정착지원반(IFRS17 연착륙방안 검토), 감독목적회계반(감독목적 자산·부채 평가기준 등 검토), 新지급여력제도반(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검토)
 - **RBC비율 신뢰수준 상향(95%→99%)** 등, 리스크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존 제도개선 과제*도 **원활히 추진**
 - * 「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」('14.7월)

4 향후 계획

① IFRS17 시행 전 선제적 대비와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보험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

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(LAT)*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단계적으로 IFRS17 수준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

*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(LAT):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하되,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하여 부족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

- 6월말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통한 개선방안 확정, 하반기 규정 개정 등을 거쳐 '17.12월부터 시행할 예정

* 현재 도입준비위원회 산하 실무작업반과 업계·자문단 의견수렴 중

②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의 금리민감도 확대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RBC비율에 반영되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확대(현행20년→30년)

*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'17.1.24~3.6 예고, 6월 중 개정 예정

③ 자본성이 우수한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회사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

*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'17.4.27~6.7 예고, 3분기 중 개정 예정

② IFRS17 체계에 부합하는 리스크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산업의 기틀을 재정립

①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(가칭 'K-ICS')를 마련하고, 급격한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경과조치 마련

* '17.4~8월 필드테스트 진행 중, '19년말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

② 감독회계 정립, 내부모형 승인제도, 리스크 관리 관련 공시 강화 등 IFRS17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감독 과제도 함께 검토·추진

참고

IFRS17 주요 내용 및 K-IFRS 제정 계획

1. 주요 내용

(1) 보험부채 평가방식 변경

○ (현행) 원가법으로 보험부채 평가

-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 중 일부를 판매 당시 정한 보험상품별 적립이율에 따라 부채로 적립

○ (IFRS17) 시가법으로 보험부채 평가

-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흐름 및 보험서비스 제공의무를 현재 시점의 할인율로 평가

(2) 보험계약 수익

○ (현행) 수입보험료 전체를 수익(매출)으로 인식(투자요소 포함)

○ (IFRS17) 당해연도에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상응하는 보험료만 수익으로 인식(투자요소 제외)

2. K-IFRS로의 채택 절차

□ IFRS17 기준서는 번역, 영향분석 및 의견수렴 이후 회계기준위원회,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(K-IFRS) 제1117호로 공포될 예정

○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17 적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번역 초안을 우선 제공할 예정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넓게 들겠습니다
바르게 알려겠습니다